

겨울 시베리아 횡단열차타고 바이칼 기행 8일

정태언 문학박사(모스크바국립대학교)와 함께하는 겨울기행

1차 2월 5일(월)~12일(월)
2차 2월 20일(화)~27일(화)

블라디보스토크, 바이칼, 압촌섬, 이르쿠츠크

문의:02-730-2270



코스모코스 비프루브 모델 박보검(왼쪽)과 이니스프리 모델 위너원의 '그린 크리스마스' 겨울 화보. 여심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으로 뷰티업계에 남성 모델 기용 바람이 불고 있다.



사진제공 | 코스모코스·이니스프리

“女心 잡아라” 화장품 든 박보검·위너원

(여심)

뷰티업계, 남성 모델 전성시대

이성 모델로 감성 자극하는 역발상 홍보
박보검·서강준 1인칭시점 CF 눈길 팍!
위너원 에디션·이벤트 마케팅 효과 톡톡



여성 톱스타들의 전유물로 통하던 화장품 광고에 남성 모델 기용 바람이 불고 있다. 일명 '코스모 모델' 전략으로 기존 남성 모델이 위너비로 등장해 제품 구입을 유도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성 모델로 감성을 자극하는 역발상 홍보 방식을 말한다. 브랜드 이미지 변화 및 제품 자체를 부각하기 위한 시



▲ 토니모리 모델 서강준.

도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여성고객이 직접 모델을 마주보는 것처럼 제작한 1인칭 시점이 눈길을 끈다. 토니모리 광고의 경우 모델 서강준이 1인칭 시점으로 등장해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오늘 좀 건조하네요”라며 피부 보호 제품을 건넨다. 또 코스모코스 비프루브 광고 역시 모델 박보검이 1인칭으로 나타나 “은도차로 망가지는 피부, 그냥 두면 되겠어 안되겠어?”라고 묻는 등 여심을 저격한다. 마스크팩 브랜드 메디힐과 색조화장품 브랜

드 셀레브 모델로 각각 현빈과 이종석이 활약 중인데, 이는 이들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서 팬덤을 형성한 한류스타임에 기인한다. 한류스타를 통해 중국·홍콩 등 아시아의 여심을 공략한다는 전략이 깔려있는 것이다. 이니스프리는 올 상반기 아이돌그룹 위너원을 신제품 ‘화산송이 컬러 클레이마스크’ 모델로 발탁해 매출 상승효과를 본 데 이어, 최근에는 ‘그린 크리스마스’를 콘셉트로 한 디지털 화보를 공개해 연말 특수를 노리고 있다. 화보에서 위너원 멤버 11명은 각자의 개성과 매력을 크리스마스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에 담아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 분위기를 전한다. 남성 모델은 여성 고객을 겨냥한 이벤트성 마케팅에도 효과적인데, 이니스프리의 경우 12월14일 까지 인스타그램에서 ‘DIY 키트 인증 이벤트’

를 통해 위너원 친필 사인이 담긴 스킨케어 세트를 경품으로 증정하는 등 여성 고객에게 어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최근 전역한 이승기는 리더스코스메틱 전속 모델 발탁을 시작으로 활동을 본격화 한다. 리더스코스메틱 측은 “이승기의 바로고 깨끗한 이미지가 유해성분 없이 피부에 좋은 원료만을 사용하는 브랜드 가치와 부합한다. 양세준과 함께 남성모델 투톱 체제로 갈 것”이라고 했다. 또 시에로코스메틱은 신예 12인조 보이그룹 ‘더보이즈’를 모델로 발탁했다. 동시대 가장 새로운 콘셉트를 표현하는 브랜드 특성이 12명 멤버 전원이 다양한 매력과 개성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더보이즈의 이미지와 부합한다는 게 회사 측 소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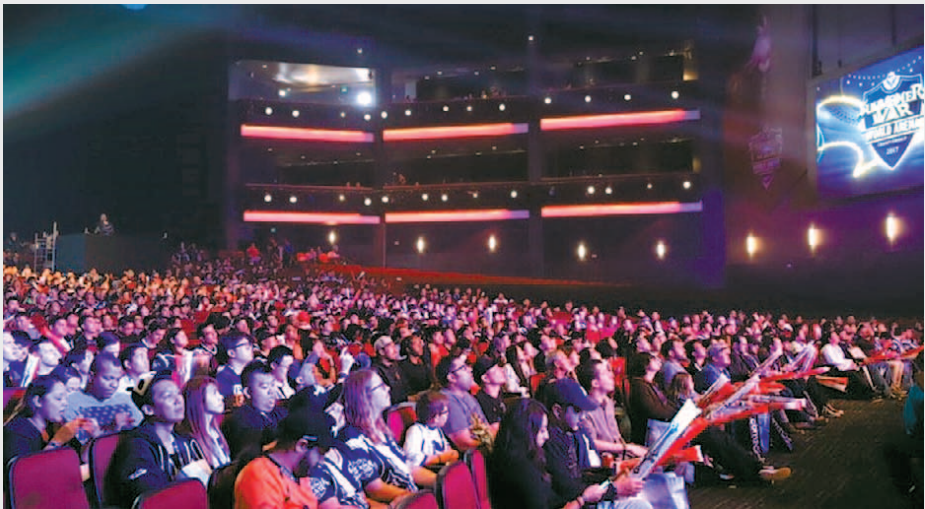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컴투스 ‘서머너즈워’, 할리우드와 손잡다

‘워킹데드’ 원작자 회사와 IP확장 계약
세계관·스토리 기반 코믹스·애니 제작



컴투스의 모바일게임 ‘서머너즈워’가 지적재산권(IP) 확장을 통한 ‘제2의 한류’에 도전한다. 컴투스는 스카이라이프엔터테인먼트와 서머너즈워의 IP 확장을 위한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의 계약은 25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마이크로소프트(MS) 씨어터에서 열린 e스포츠 대회 ‘서머너즈워 월드레나 챔피언십(SWC) 2017’ 현장에서 영상 퍼포먼스를 통해 공개됐다. 스카이라이프는 미국 케이블TV 드라마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전 세계적 돌풍을 일으킨 ‘워킹데드’의 원작자 로버트 커크먼이 설립한 회사다. 양사는 서머너즈워의 세계관과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코믹스와 애니메이션을 시작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해당 작업에는 로버트 커크먼을 비롯해 스카이라이프 공동 설립자인 최고경영자(CEO) 데이비스 알퍼트와 ‘스타워즈 클론전쟁’, ‘앵그리버드 무비’ 제작자인 스카이라이프 노스 CEO 캐서린 월터



미국 LA 마이크로소프트(MS) 씨어터에서 열린 e스포츠 대회 SWC 월드 파이널에 참석한 관객들이 경기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제공 | 컴투스

가 함께 총괄 프로듀서를 맡아 제작 전반을 지휘하게 된다.

서머너즈워는 지난 2014년 출시돼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8000만 다운로드, 누적 10억 달러 매출을 기록한 글로벌 인기 모바일게임이다. 컴투스는 이번 IP 확장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서머너즈워를 통해 한국의 원천 콘텐츠가 세계 문화 콘텐츠의 심장부인 미국 할리우드에서 메이저

P로 성공하는 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컴투스는 SWC 월드 파이널을 25일 MS씨어터에서 개최했다. 3000여명의 현지 팬들이 좌석을 가득 채웠고, 온라인 방송 동시 접속자수도 7만건을 넘어설 만큼 관심을 모았다. 이번 대회에선 상하이 대표 토마토가 LA 대표 싸이를 물리치고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자에게는 2만 달러의 상금과 우승 트로피가 수여됐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평창 e스포츠 페스티벌’ 12월1~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평창 e스포츠 페스티벌’ (사진)이 12월 1일부터 3일까지 강원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 열린다. 현장에선 아마추어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공인 e스포츠 PC클럽 대항전이 진행된다. 예선을 통과한 클럽 대표 ‘리그오브레전드’ 8개팀과 ‘배틀그라운드’ 20개팀이 출전해 전국 최고 클럽팀을 가린다. 유엔해비타트 유스컵도 열린다. 리그오브레전드와 배틀그라운드 2개 종목이며 전국 18개 대학 대표 125명이 참가해 자웅을 겨룬다. 상금은 수상팀

명으로 유엔해비타트 본부도 전달돼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IT센터 건립기금으로 기부된다. 참가 학생들에게는 그레파카드와 호텔 숙박권 등이 경품으로 지급된다. 그 외 등계올림픽 체험존, 스키점프 가상현실(VR) 체험존, 공인 e스포츠 용품 및 e스포츠 종목 ‘한빛오디션’ 체험존, 스키 강습 프로그램 등 즐길 거리도 준비될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G4 렉스턴, 충돌안전성 최고 등급 획득

쌍용자동차는 27일 G4 렉스턴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17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서 충돌안전성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G4 렉스

턴에는 운전석 무릎에어백을 포함한 동급 최다 9에어백이 적용됐으며, 차체에는 동급에서 가장 많은 81.7%의 고장력강판을 사용했다. 포스코와 공동개발한 쿼드프레임으로 견고한 차체 강성을 확보했으며, 충돌 시 상대 차량의 안전까지 배려하는 첨단 설계기술이 적용돼 있다. 쌍용자동차 최고직 대표이사는 “세계적인 수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투자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PC삼립, ‘프랑스 장인 비법잼’ 3종 출시
SPC삼립이 잼 월드 챔피언 ‘스테판 페롯’과 협업해 ‘프랑스 장인 비법잼’ (사진) 3종을 출

한국e스포츠 산업규모 830억

스폰서 시장은 축구·야구 이어 3위

한국의 e스포츠 산업규모가 800억원을 넘어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7일 발간한 ‘2017년 e스포츠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e스포츠 산업규모는 2016년 기준 약 830억3000만원으로, 2015년과 비교해 14.9% 증가했다. 광고효과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스폰서 시장 규모는 212억원으로, 축구와 야구에 이어 3위에 올랐다. 한국 e스포츠 시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방송으로 전체의 44.8%에 해당하는 총 372억30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그 외에 구단 예산(212억7000만원), 스트리밍 및 포털 분야(136억4000만원), 온·오프라인 매체(62억9000만원), 상품규모(46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한국 e스포츠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2016년 기준으로 생산유발효과 163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633억원, 취업유발효과 1만 173명으로 조사됐다. 생산유발효과는 2015년도와 비교해 15.9% 상승했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4.1% 상승했다.

한편 e스포츠 프로선수의 연봉은 2017년 평균 9770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406만원에서 52.5% 늘어날 수 있다. 해외진출 후 복귀한 선수들과 기존 스타급 선수들을 중심으로 역대 연봉자가 다수 배출되면서 평균 연봉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명근 기자



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한 스테판 페롯은 SPC 삼립과 함께 원료 선별부터 제작 공정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직접 잼 만드는 과정을

원성열 기자

한 눈으로 보는 경제

27일

코스피지수	2507.81	↓	-36.52
코스닥지수	792.80	↑	+0.06
日 닛케이 지수	2만2495.99	↓	-54.89
中 상하이 종합	3322.23	↓	-31.59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153	↓	-0.016
환율 (원·달러)	1088.6	↑	+3.20
국내금값 (원/그램 g)	4만5227.43	↑	+111.82

오늘의 얼굴

김종인 대표 “스타트업 2018”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사진)가 내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새 캐치프레이즈 ‘스타트업 2018’을 선포, 모바일 기반으로 전문 상품을 고객에게 제안하는 형태로의 전환을 가속한다고 밝혔다. 관행적 업무 제거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업무 혁신과 고객 관점에서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향후 20년을 준비할 계획이다. 또 2018년 건강가치(Healthy), 바로 결정(Agile), 투명협력(Open)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혁신성을 벤치마킹해 기업 체질을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고객 트렌드와 환경에 즉각 대응 가능하며 빠르게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조직 운영을 위해 12월부터 ‘모바일 오피스’를 분사 전체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스타트업의 혁신성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롯데마트 모든 팀과 점포가 각각의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비즈 TALK TALK

● “종교인 과세 시행령, 이번 주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 “한국, 내년에도 3%대 성장…이번 달 포함 기준금리 3차례 인상 예측” (골드만삭스, 27일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 주요 수출국의 2018년에도 성장률을 전망하며)

데이터 경제

기업형 슈퍼마켓 서비스 만족도

한국소비자원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수퍼, 롯데수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상위 4개 업체의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종합만족도가 5점 만점에 3.91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GS수퍼가 3.79점으로 2위, 롯데수퍼와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각각 3.76점, 3.74점으로 뒤를 이었다. 또 자채브랜드(PB) 만족도에서는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3.66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GS수퍼(3.64점), 롯데수퍼(3.59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3.55점) 순이었다.

종합만족도 ※5점 만점

Home plus Express	3.91
GS Supermarket	3.79
LOTTE Super	3.76
Emart everyday	3.74

자채브랜드(PB)만족도

Emart everyday	3.66
GS Supermarket	3.64
LOTTE Super	3.59
Home plus Express	3.55



편집 | 신하늬 기자